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Nov. 22. 2026
(통권 1133호)



오늘의 말씀

"넓은 마음"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넓힐 때

[고후 6:11~13]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2)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담임목사 정 석 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서론 ~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넓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는 좋은 일이 많을 때만 가능할까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해도 마음이 좁아져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깊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바라보는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사이에 피어나는 은혜」라는 주제로 용서와 관계, 긍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이어주는 '넓은 마음'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넓이는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넓은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고후 6:11)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그는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며, 그 안에서 감사와 사랑이 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강해

좁은 마음은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고후 6:12).

[고후 6:12]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마음이 좁아지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도 좁아집니다. 여기서 '좁아졌다'는 표현은 헬라어 [στενοχωρέω(스테노코레오, stenochōreō)]에서 온 말로, 좁은 공간에 갇혀 여유가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자신을 향해 닫혀 있음을 지적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상대방의 사정보다 나의 감정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장점보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을 먼저 보게 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불편함이 더 크게

보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크게 보이고,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감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은 잘못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변화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사람을 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넓은 마음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면서도 사람을 향한 사랑의 문을 닫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분명한 경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멸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고후 6:11; 시 4:1).

[고후 6:11]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은 갈등 속에서도 마음을 열어 놓았습니다. '넓어졌다'는 표현은 [πεπλάτυνται(페플라튄타이, peplatyntai)]입니다. '넓히다'라는 뜻의 [πλατύνω(플라튀노, platynō)]에서 온 완료형으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 놓았음을 나타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언제나 바울을 이해하고 존중한 것은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사랑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넓은 마음은 갈등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사랑할 공간을 남겨 두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자신을 넓혀 주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 4:1]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너그럽게 하셨다'는 히브리어 [הִרְחַבְתָּ(히르하브타, hirchavta)]로, '넓히다'라는 뜻의 [רָחַב(라하브, rachav)]에서 나온 말입니다. KJV은 "Thou hast enlarged me when I was in distress"라고 번역합니다. '곤란'은 좁고 압박 받는 상황을,

'넓히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의 공간을 열어 주셨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이 직접 마음의 아량이 넓어졌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적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분노 가운데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4절),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8절).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넓혀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넓혀 주십니다. 문제가 남아 있어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은혜가 우리의 시선을 넓혀 주시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넓은 마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자라납니다. 로마서 15:7은 말합니다.

[롬 15: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언제나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은혜로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넓은 마음은 타고난 성격의 장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변화입니다.

넓은 마음은 위협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행 4:23-31).

초대교회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풀려난 두 사도는 동료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들은 말을 전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한 사람들을 제거해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행 4:29)."

그들은 위협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들은 위협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안전만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구했습니다(30절).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해지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위협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이 박해자들을 직접 용서하거나 품었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보복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향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4:6은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은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믿음에서 자라납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담대한 증인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행 4: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어지는 32-35절에서는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소유를 나눕니다. 성령의 역사는 담대한 복음 전파에만 머물지 않았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서로를 향해 열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협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도 넓혀 주십니다.

넓어진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립니다(고후 6:13; 롬 15:7).

[고후 6:13]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 '마음을 넓히라'는 표현은 [πλατύνθητε(플라튄데테, platynthēte)]입니다. 11절의 '넓어졌다'와 같은 동사에서 나온 명령형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어 놓았듯 고린도 성도들도 마음을 열어 달라고 권면합니다. 그들 사이에 가로놓인 오해와 거리감을 넘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생각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행동 속에서 넓어진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랑에는 때로 분명한 경계와 지혜로운 판단도 필요합니다. 넓은 마음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공간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은 감사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3:15은 말합니다.

[골 3: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감사할수록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수고가 감사하게 보이고, 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5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품는 법을 배워 가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시작하여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려로 이어집니다.

맺는말 ~ 은혜가 넓혀 주신 마음에는 감사가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환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넓혀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품으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충분하심을 믿기에 드리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깊은 감사가, 사람을 향해서는 더 넓은 사랑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Grace Through Life – 인생 전체에 피어나는 은혜」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감사」입니다. 오늘 발견한 감사의 마음을 출발점으로 삼아 삶 전체를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메모
~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실 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피어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자라납니다."

V. 오늘의 기도 포인트
A. 주님, 제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 나의 기준과 감정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B.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C. 우리 교회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소서.